

국민 35% “노후 준비 미흡” 가장 원하는 복지는 ‘고용’

취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국민 35% 가량은 여전히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방법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전부였다. 또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고용(취업) 지원’을 가장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30일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지원이 32.5%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와 10대(13~19세)에서 각각 43.7%, 4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36.0%), 40대(31.4%), 30대(25.5%), 60대 이상(25.8%) 등의 순이었다.

고용지원에 이어선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8.7%), 소득지원 서비스(16.4%)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 시설’이 23.2%로 가장 많았다.



다만 30대에는 32.9%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을 확충’을 선택해 대조를 보였다. 60세 이상은 건강을, 30대는 육아를 더 중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성인(19세 이상) 인구 중 34.9%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음(40.1%),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33.7%), 아직 생각 안 함(17.6%) 등을 꼽았다. 성별로 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여성(40.4%)이 남성(29.3%)을 크게 상회했다. 연령대별로 19~29세가 59.6%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44.7%였다. 이어 30대(26.4%), 40대(21.2%), 50대(21.8%) 등의 순이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65.1%는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경우가 5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적금(18.4%), 사적 연금(8.4%), 기타 공적 연금(8.3%), 부동산 운용(5.2%), 퇴직급여(3.9%), 주식·채권(0.5%) 등의 순이었다.

지폐 평균 수명 증가 5만 원권 13년 6개월로 최고

5만원권 지폐의 기대수명이 13년 6개월로 국내 지폐 종류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 빈도가 점점 줄다보니 지폐의 수명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를 보면 화폐 평균 수명은 5만원권이 162개월(13년6개월)로 나타났다. 1만원권은 127개월(10년7개월), 5,000원권이 49개월(4년1개월), 1,000원권이 53개월(4년5개월)이었다. 화폐 유통수명은 신권이 한은 창구에서 발행된 뒤 시중에 유통되다가 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환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다.

돈의 수명을 가른 요인은 ‘얼마나 튼튼한지’ (용지 재질)와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화폐 사용 습관), ‘사람들 손을 얼마나 탔는지’ (사용 빈도) 등이다. 이 가운데 사용빈도가 지폐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액면가가 낮은 지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면서 수명이 짧아졌다고 분석했다. 5만원권 수명이 긴 이유는 보관하는 비상용 현금으로 고액권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지난해 한국 국민은 예비용 현금의 80%를 5만 원권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 조사됐다.

또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 결제가 늘면서 현금 유통수명은 길어지는 추세로 지난해와 비교해 천 원권은 1개월, 5천원권과 만원권은 6개월씩 수명이 늘었다. 천 원권과 5천원권은 만원 이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많이 사용돼 만 원권 등에 비해 유통수명이 짧았다.

한국은행의 2017년 지급 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개인들은 만원 이하 물품·서비스 구매 때 76.7%가 현금을 사용했다. 만 원권은 사용이 잦지만 돈을 모으는 데도 사용돼 천 원권 등에 비해 유통수명이 길었고, 5만 원권은 돈을 저장하는데 많이 이용돼 사용 기간이 가장 길었다. 한은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의 활성화로 현금 이용이 줄었고, 화폐 이용 습관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일이 줄어들면서 지폐의 수명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금을 많이 쓰는 주요국 지폐와 비교해도 한국의 화폐 유통수명은 긴 편으로 조사됐다. 최저 액면권 기준으로 보면 1,000원권은 유럽 5유로(18개월), 일본 1,000엔(18개월), 영국 5파운드(23개월), 멕시코 20페소(44개월), 스위스 10프랑(46개월)보다 길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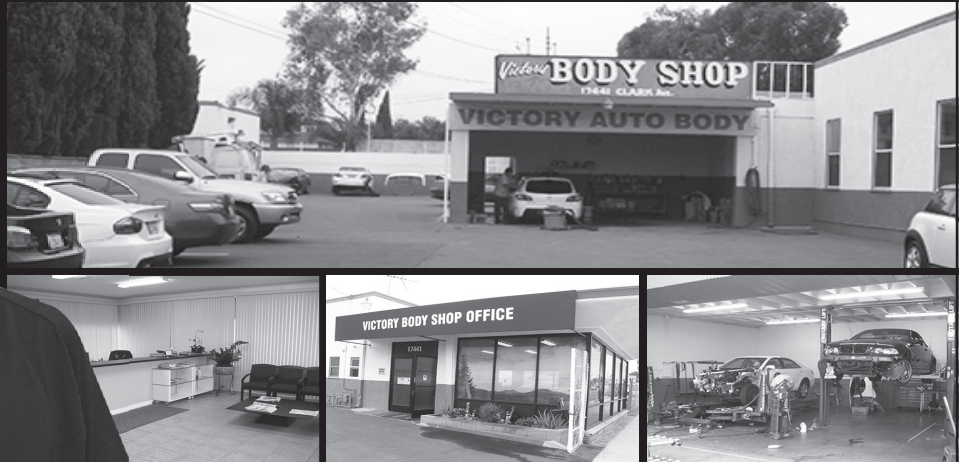
빅토리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